

오늘도, 월요일도
고생 많았어요



DSME **가족지**

vol. 246 | 2018 하반기

- 02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 04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 06 응답하라 DSME 뉴스
- 08 그림으로 읽는 뉴스 : 야말
- 10 엄마에게 듣는 배 이야기
- 12 우리동네 지도 - 옥포동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부서 정기 모임이라 한잔.
동료가 힘들어해서 한잔.
일 마치고 수고했다고 한잔.

당신의 잦은 저녁 모임,
연말 되니 더 끝이 없네요.

결국, '가족은 안중에도 없나?'
뿔이 나서 잔소리를 쏟아내고
휴대폰에 '웬수'라고 저장합니다.

그러다가도
해장국 콩나물을 사는 건
365일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힘든 일을 이겨내는
당신 고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당신!
우리 가족 연말 시상식에선
당신이 영원한 남우주연상이에요.

하지만, 회식은
조금만 달리는 게 어때요? ^^

- 당신의 아내 효진이가



마~ 올해도 고생 많았다.



행님, 그러면~
2차 갑시다~



맨날 늦게 가더라도,
오늘은 가족이랑 송년회해라~



'가족이랑 송년회라...'



꽃이나 사갈까?



* 장효진 사우(선박탑재2) 가족의 송년회 얘기를 담았습니다.
촬영에 협조해 준 아내 조효진, 자녀 장윤서님께 감사 드립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
그 동안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려 노력해왔지만
당신 입장에서선 섭섭한 게 많았을거야.

당신이 윤서까지 챙기느라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
돌이켜보면,
내가 큰 도움 못 준 것 같아 미안하네.

그래도 우리가 했던 약속처럼
나도 최선을 다할게.
앞으로 내가 당신을
끝까지 밀어주고 도와줄게.

고단한 일이라도 힘든 줄 모르게 해줘 고맙고
보람 느끼며 살 수 있게 해줘 고마워.
사랑해♡

- 당신의 남편 효진이가

사보를 가족에게 전해준 사우 30명
(협력사 포함)에게 10만원 식사권을 드립니다.



▶ 참여 기간 : 2019년 1월 15일(화)까지

▶ 참여 방법
가족과 가족지 보는 사진을 카톡이나 문자로 송부
•연락처 '010-9477-9544'로 친구 추가
* 'DSME가족지'는 회사 '홈페이지'(www.dsme.co.kr)
→ 홍보센터 → 웹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고마워요, 힘내요, 사랑해요

가족지를 애독하는 사우들이 올 한 해도 멋지게 달려 온
가족과 동료, DSME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김만수 (수상함전장설계)

“큰 아이가 동생에게 가족지를 읽어준다고 책장을 넘깁니다. 저도 가족지에 나온 영국 군함 ‘마스’를 아빠 배라고 알려주었지요. 마스 프로젝트를 수행한 인연으로 지난해 입사했는데, 이제 마스 4척을 모두 인도했네요. 주말 부부를 감수하면서까지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흔쾌히 허락하고 응원해 준 우리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파견자에게도 가족같이 대해주며 인도 마지막까지 고생한 동료들 모두 감사합니다.”



한초아 (선행도장)

“크레인을 좋아하는 아들은 엄마 회사가 ‘정말 멋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워킹맘 생활이 힘들 때도 있지만, 조선소에 다니는 엄마를 동경하는 아들 덕분에 자부심 갖고 힘내어 일합니다. 앞으로 조선경기와 회사 경영 상황이 점점 더 좋아져서 엄마 회사에 대한 아들의 순수한 동경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워킹맘, 워킹대디, 그리고 DSME 모든 사우들, 잘해왔고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 지면상 다 게재하지 못하지만, 가족지와 회사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 사우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소영 (선박기장배관설계)

“가족지를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보게 됐네요. 회사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아이들이 가족지를 보면서 “엄마, 플레이그라운드(회사 어린이집) 같이 다니던 친구가 나왔어~ 엄마 회사에 견학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가고 싶다”고 아우성이네요. 애들아 차차 나아질거야. 골고루 기회가 오겠지, 이제 앞으로 주욱~”



음경식 (해양선장설계)

“당신이 곁에 있어 올해도 이겨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내년도 문제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희근(용접기술연구)

“아이들과 DSME가족지를 같이 바라보며, 아빠 회사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이런 게 행복인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행복을 가꾸는 우리 가족처럼, DSME의 다시 시작되는 행복 스토리를 위해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달리는 DSME 사우 여러분~! 모두가 수고 많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뤄지리라 확신합니다. 파이팅!”

“우리 가족, DSME 모두 사랑해요”



박경진
(선박기장철의설계)



김준호
(CCS생산1)



황도경
(잡수합의장)



조민재
(조립5)



박혜진
(해양선장설계)



진보태
(해양의장2)



구철웅
(가공)



김선모
(선박생산1)



박재원
(잡수합의장)



오진택
(선박선장배관설계)



이준행
(선박생산기술)

가족이 묻고 회사가 답하는 NEWS



Q1.

회사 일감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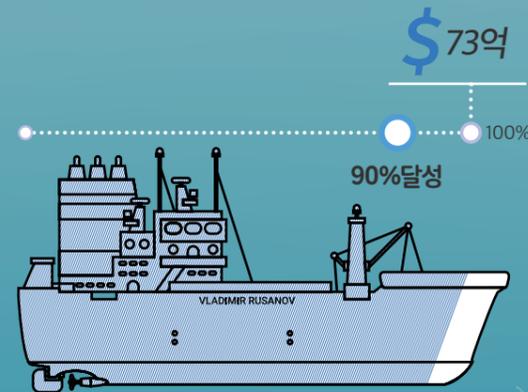
우리회사가 단일 조선소로는 가장 많은 일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소의 가장 이상적인 물량은 2년 반치를 확보하는 것인데 회사는 현재 2020년 하반기 물량을 다 채우고 2021년 상반기 물량까지 채우고 있는 중이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그럼 수주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수주목표는 73억 달러입니다. 12월 18일 현재 65.8억 달러를 수주해 목표의 약 90%를 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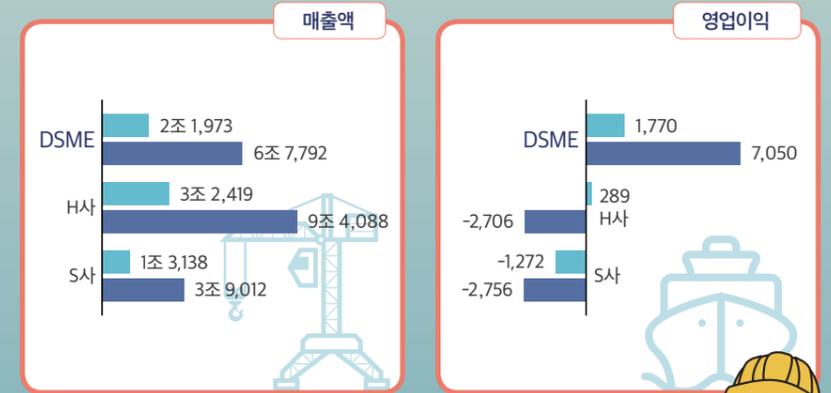
Q3.

회사 이제 괜찮은 건가요?

국내 조선소들 형편이 다들 어려운 가운데, 우리회사는 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제 정상화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 2018년 3분기 조선3사 실적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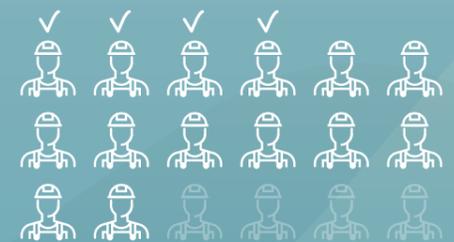
■ 3분기 ■ 1~3분기 누적 * 단위: 억원



Q4.

연내 9,000명까지 인적 구조조정 하나요?

인적 구조조정은 회사만의 결정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지구계획을 짤 때는 올해 매출 7.5조 원, 내년 4.5조원을 가정해 인원을 9,00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조 원, 내년 4.5조 원을 훨씬 넘는 매출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 상황이 많이 개선돼 처음 예측한 것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런 상황을 고려 않는 구조조정의 강행은 회사를 다시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상황에 맞춰가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 입장입니다.



상황에 맞춰가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Q5.

대통령이 올해 두번 회사에 왔다는 데 이유가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산업현장 방문지로 1월 3일 옥포 야드를 방문했습니다. 침체에 빠진 조선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9월 19일에는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차세대 잠수함의 진수(물에 뜰 수 있을 만큼 성공적으로 제작됨을 알리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통령이 1년에 두 차례나 한 회사를 방문하는 일은 그 만큼 우리회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Q6.

남편이 해양에서 일하는데, 해양 수주가 계속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양 물량이 떨어지면 특수선이나 상선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제품 수주가 저조한 상황을 감안하여 선박과 특수선 분야에서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해양 제품 수주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말

DSME가 새긴 세기의 발자취

회사가 지은 야말 프로젝트(쇄빙LNG선)가
근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배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야말 이모저모 총 15척 5조 원 이상



- 야말프로젝트는 모두 15척으로 현재 8척을 건조, 인도했습니다.
('18년 11월 기준). 2020년까지 모두 지을 예정.
- 수주 금액은 5조 원 이상
- 한번에 나르는 LNG량은 우리나라가 하루 이상 쓸 수 있는 양 (17만 3,000m)
- 선박 길이는 63빌딩 보다 높은 299m. 폭은 50여m.

야말의 주요 기술



- 360° 회전
- 최대 2.5m 높이의 빙하 깨고 추진
- 영하 57°를 견디는 성능
- 회사 고유 연료 공급 기술

남 아메리카

겨울 경로

여름 경로

사베타 SABETTA

환적
(천연가스를 옮겨 실음)

야말 프로젝트란? 쇄빙LNG선

시베리아 서쪽 야말 반도에 위치한 천연가스전을 개발해
1,650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대규모 사업과 여기에
투입되는 쇄빙LNG선을 말한다.

환적

야말이 딛 '라이틀'

01 세계 최초

LNG를 싣고 쇄빙선 없이 스스로 얼음을 깨며
북극항로를 오가는 선박을 세계 최초로 만들.



02 세계 최고

- 세계 3대 조선해운 전문지 미국 마리타임 리포터 '2017 최고 선박' 선정
- 산업통산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 세계 일류 상품' 선정
- 2018 대한민국 기술대상 국무총리상 (2018.12.6)

· 문재인 대통령

"세계최초·최고의 쇄빙 LNG선 위에 직접 오르니 자긍심이 느껴진다.
대한민국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세계에 증명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 '18년 1월 3일 옥포 야드에서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야말은 막연하게 여겨지던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러시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 / '17년 6월 3일 현지 명명식에서



엄마~ 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재준아, 저런 종이배를
엄마한테 지금 하나
만들어 줄래? 100원 줄게.



하하. 이렇게 엄마가
네에게 배를 주물하고 가격이라
일정도 협상했지?
이걸 **영업**이라고 해.

에이~ 100원은 짜다.
500원은 주마지.
다른 숙제도 있지만
먼저 만들어줄게.



이런 그림 설명서가
조선소에서는
설계 도면이 되지.

이제 뭐가
필요하지?
종이접기 설명서가
필요해요.



배 만드는 재료를
구매하는 일을
조달이라고 한단다

색종이, 색연필,
풀도 사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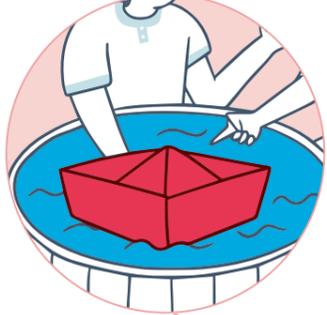
엄마~ 이렇게 접고,
색칠하고, 붙이는 건
생산이겠네요?

잘 만들었는지
볼까?



여기가
빠들한 거 같은데?
품질이 안 좋은 걸?

엄마,
잘 만들었죠?
이제 줄게요.



이제 물에 잘 뜨는지
시운전해 볼까?

선주에게
배를 다 만들어 넘기는 걸
인도라고 하죠?



그렇지. 엥, 여기가 좀 망가졌다.
재준아 고쳐주라.
이게 **보증관리**란다.

그렇지. 엥, 여기가 좀 망가졌다.
재준아 고쳐주라.
이게 **보증관리**란다.



그렇지. 엥, 여기가 좀 망가졌다.
재준아 고쳐주라.
이게 **보증관리**란다.



영업

런던, 그리스, 동경, 휴스턴 등 해외지사가 시장 동향을 수집하고, 영업부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주 입맛에 맞는 선박을 제안해 성공하면 '수주 계약'을 합니다.

설계

①기본설계(배의 규모, 기본 성능 등을 결정)→②상세설계(배 부위마다 특성에 맞게 세부 설계)→③생산설계(장비 배치와 설치 도면 작성) 순으로 이뤄집니다.

*선종, 공종마다 위 분류가 다를 수 있음.

조달

철판, 엔진, 보일러, 파이프, 전선 등 배 구성품을 국내외에서 구입합니다. 자재비는 보통 선가의 60~70%를 차지하지요.

생산

철판을 자르는 가공, 철판을 붙여 작은 구조물(블록)을 만들어가는 조립, 더 큰 구조물을 만드는 탑재, 구조물에 전선·파이프 등을 설치하는 의장, 색칠하는 도장 작업 등을 하지요.

품질

생산과정 중에 회사의 *QM요원들이 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합니다.

*QM (Quality Management)
: 품질관리

시운전

바다로 나가 실제 항해와 똑같이 운항해 제 성능을 확인합니다.

인도

회사는 창립 이래 1,300여척의 선박, 해양 프로젝트, 특수선을 선주에게 인도했습니다.

보증관리

보통 선박은 인도 후 1~2년의 보증 기간을 가집니다. 회사는 5대양 6대주로 연중무휴 A/S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우리 동네 전도

우리 가족 여가시간에 어디로 갈지도 둘러보고 싶은그림 찾기도 해보세요!
숨은그림 : 고구마, 참이, 사과, 기위, 나비

이번 숨은그림 정답을 촬영해 보내준 시우 20명은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만원권)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010-9477-9544 카톡 또는 문자로 숨은그림 정답 사진과 시우 성명, 소속, 연락처를 함께 송부



가이드



서원야장 (152.1km)

장동야장 (100.5km)

동산 (156m)

1. 거제경찰서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강좌 가득
(<http://sppp.uibk.kr>)

2. 옥포공영육아 나눔터

축구 관람하기

포켓볼, 보드카페도 있고, 접착크림 만들기 등 교육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6394-8233)

필라포 해수목장

옥포대참기념공원

기념탑, 전시관, 옥포주, 판각정 등을 거닐며 일진야장, 거북선, 판옥선, 갑을 화포를 만나고 옥포만 경치까지 볼 수 있어요.

옥포2중국민센터 2층 인가실에서, 쿠키클레이 등 아이와 함께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6838-5816)

3. 거제박물관

4. 옥포초등학교

5. 옥포중앙도서관

6. 옥포중학교

7. 옥포공원

8. 옥포둘레길

바다와 숲 내를 거닐만한 해안 테크와 오솔길, 야경도 멋진 산책로 (옥포항~필라포 마을 1.95km) (필라포~덕포해수목장 3.45km)

소풍, 숲 체험, 놀이시설이 가득한 산책, 체험단원하기 좋은 곳. 안전했을 때 외사 전경 보여주기도 딱, 야경은 더 좋아.

9. 국사박물관

10. 에드미럴호텔

하나코아를 즐길, 국제제강, 쿠팡 클러스터 등 행사와 강좌로 외국인과 한국인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비영리단체 페이스북에서 활동 안내를 합니다!

11. 옥포항

일반 도서관, 자연학습터, 미술교를 통한 스토리텔링 해설 강의, 병아리아슬란 교육 등 남포노소 공부하기의 가득.
(www.okpovehave.or.kr)